



둘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은 자녀를 통해 부모가 복을 받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 하리로대 이 때 당시 전쟁은 창이나 활이 주무기였습니다. 만약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이 떨어 지면 그 장수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식을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합니다. 그만큼 든든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는 말은 젊은 시절에 낳은 자식이 그 부모가 노쇠하였을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화살과 같다는 말의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키운 자녀는 화살통에 꽂힌 화살과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자녀는 부모의 가슴에 꽂힌 화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부모는 자녀를 통해 인생의 노년에 축복을 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세워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 송 428장(통합찬송가488장)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다 같이**

- 1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 2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 3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 4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 후렴**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취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뵈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인도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다 같이**

2023년
가족과 함께 드리는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추석 가정 예배 순서

인도/가족 중에 교회 직분자 또는 웃어른

목상기도 다같이

민족 고유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목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찬 송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다같이

1.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후렴 /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2.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기 도 인도자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보시지 않은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함께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에 아픈 상처나 고통이 있거든 이 시간을 통해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해 주세요. 저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봉독 시편 23:1-6(구약 817쪽) 인도자

- 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말씀나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도자

다윗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왕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특별하게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수금과 비파를 켜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하나님은 목자이십니다(2절).

양은 눈도 좋지 않고 현명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서 풀만 보면서 뜰어먹고 가다가 길 잃어버리기 쉬운 둔한 동물입니다. 어디에 풀이 있고, 어디로 가면 물을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양은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양이 잘해야 하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목자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물과 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목자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데 있습니다.

2.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4절).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어려움들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넘어서 수 없는 정말로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까지도 위협합니다. 인생길을 갈 때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고 쏘아 보는 짐승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수도, 실패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어떠한 사나운 짐승이 잡아삼키려 할지라도 그보다 더욱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3.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1,5절).

우리는 세상 것이 풍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가 풍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풍성한 삶이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물질을 거두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물질도, 친구도, 건강도 다 떠나 아무것도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습니다(딤후1:15). 하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풍성한 삶의 근본을 왕권이나 왕이 누리는 부귀영화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뒹눴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추석이 이 풍성한 하나님 때문에 풍성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명절 되기를 소원합니다.